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7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27일 (음력 9월 8일) 금요일

“전두환정부 軍보안사, 5·18 덮기위해 분열공작”

전두환 정부 시절 군 보안사(현 기무사)가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금전지원 회유, 사찰 등의 방법으로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문건 6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광주 사태 1주년 대비 예방정보활동 결과(1981년 5월 28일 작성) ▲정보사업계획(1985년 3~4월 작성) ▲광주 5·18 유족 순화 사업 추진 중간보고(1985년 11월 6일 작성) ▲광주 사태 관련 유족 순화 계획(1988년 2월) ▲광주 사태 관련자 순화(1988년) ▲5·18 온건 유족회 등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 관련 문건 6건 공개 금전지원·회유·사찰 등 유족간 분열 조장해

해당 문건에는 화원·종교인·유가족 대상 순화활동 결과 및 군부대책, 유족회 성향별 활동 감시 및 극렬 측 물 빼기 작전과 온건 측 육성사업 내용 5·18 유족회 극렬 회원 물 빼기 작전 실적, 군 관련 유족 순화 및 온건 유족회 육성 활동 및 예산, 강경 유족 단체 대상 순화 사업 실적, 5·18 온건 유족회 현황 분석 등이 담겼다. 순화활동은 당시 보안사가 유족들을 성

향에 따라 극렬 측과 온건 측으로 구분하고 극렬 측에는 이른바 ‘물 빼기 작전’을 온건 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벌인 일종의 분열 공작이다.

유사시에는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가 받았던 공세적 시위진압 훈련 ‘중정훈련’을 실시하며 비상대기토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여차하

면 제2, 제8의 5·18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표출했던 다름과 갈등이 전두환 정권이 군정보기만 보안사를 앞세워 벌인 ‘너러운 공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건에 선명하게 적힌 이종구 당시 보안사령관의 결재시인은 5·18 당시 뿐 아니라 이후 수습과정에 서도 군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는 생생한 증거”라며 “이 문건들을 통해 5·18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윤규 기자



아전인수

국인의당 정동영 의원은 26일 “애초부터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것이 무리한 등판이었다고 밝혔다. 당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시도에 당·지역위원장 일괄사퇴안에 대해선 ‘특재적 발상’이라며 ‘안 대표(표)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리더십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안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비례정당과 통합,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추진 등으로 불거진 당내 혼란에 안 대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에게 노선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본 업무에 노란꽃잔치 등 축제 지원·전남도 감사자료 준비

장성군 공무원들 ‘일복’ 터졌다

“요즘 장난이 아니네요. 몸이 다섯 개 정도 되면 좋겠네요.”

지난 24일 오전 8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장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기자가 “눈이 좀 쾅해진 것 같다”라고 말하자 “어제도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라며서 이처럼 말했다.

장성군에 요즘 복이 터졌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대박이 났기 때문이다. 덕분에 공무원들에겐 ‘일복’이 터졌다. 축제가 밤 9시를 넘겨야 끝나는 만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평소 업무에 축제 준비 업무까지 떠안은 때문에 몸이 몇 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장성군은 목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정기 퇴근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기 퇴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다.

요즘 같아서는 ‘주 6일

근무’를 당연히 여기는 부서도 있다. 모 부서의 경우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나 10월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백양단풍축제’를 비롯해 큰 행사가 치러져 그야말로 일복 터지는 날을 보내야 한다.

공무원들이 바쁜 이유는 꼭 축제 준비 때문만은 아니다. 11월에 전라남도 종합 감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장성군은 올해 축제와 2018년도 예산 수립 등으로 바빠질 것을 예상하고 감사를 늦춰달라고 전라남도에 양해를 구하고 한 달 가량 미룬 상태다.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직원은 “우리가 애써서 준비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대박이 난 덕분에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는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전남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가져

한국노총, 전남경총 관계자 300여명 화순 민연산에 모여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26일 화순 민연산에서 노사민정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노·사 일체감 형성과 노·사간 상호 존중의 점착과 유대감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전남본부 이신원 의장, 전남경영자총협회 석동현 상임부회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국 청장을 비롯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등반대회는 올해로 19년차를 맞고 있는데 한국노총전남본부와 전남경영자총협회가 노사협력력을 통한 노사화합과 전남지역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시작했다.

이신원 전남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노사민정 상호간의 의의를 다지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신뢰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늘 우리의 산행이 전남 노사가 지역사회 주체로서 서로 믿고 책임지는 화해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석동현 전남경총 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노사 간의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자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오늘 같이 의미있는 행사가 산업현장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정동영



안철수



박지원

2017년도담사1번지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KOREA

우리 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읍 17일간 음악여행

강진만 제2회 초추는 갈대축제

The 2nd GangjinBay Reeds Festival

2017.10.27~11.12 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찾아오시는 곳 강진만 생태공원